신만 바꾸면 완전 딴 사람 된다

(역대하 34:1~33)

14.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만 바꾸면 완전 딴 사람 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만 바꾸면 완전 딴 사람 된다'

미국 뉴저지의 한 시골 학교 교실에 저마다 과거를 가진 25명의 아이들이 앉아있습니다. 마약을 상습 복용한 아이도 있고, 소년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아이도 있고, 15세도 안 되는 나이에 벌써 세 번씩이나 낙태를 한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 같이 부모와 교사들이 장래를 포기한 문제아들입니다. 이 교실의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이 반을 맡게 될 베라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베라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규율을 지키라든지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얼굴에 함박웃음을 띄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칠판에 썼습니다.

다음 세 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보세요.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 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B.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날마다 정오까지 잠을 자고 아편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
C. 전쟁 영웅이고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만 즐기며 법률 위반과 불륜 관계가 전무한 사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인류를 위해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C를 선택했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A의 사람은 바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또한 B의 사람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질이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선택했던 C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나치스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실은 충격으로 인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읽던 베라 선생님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훗날 심리학 박사가 나오고 법관이 나왔으며 비행기 조종사도 나오고 월 스트리트의 촉망받는 경영인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통령과 수상이 되기 전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에 외모가 있다면 곧 말과 행동입니다. 사회적 요구와는 다르게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두 명의 부인이 있고, 날마다 정오까지 잠을 자고 아편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와 처칠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반면에 무흠하게 살던 아돌프 히틀러는 어떻게 나치스의 창시자가 되어서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일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최순실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 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야 왕이 므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BC.609년이고 남 왕국 유다는 BC.586년에 망합니다. 즉 요시야가 죽고 23년 뒤에 남 왕국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남 왕국 유다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춘기인 16세 때에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의 주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게 될 존재로서 하나님

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내 인생이 무엇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을 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된 영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요시야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 곧 신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재위 12년, 20세가 되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미 사라진 북 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에 잔류하고 있던 선민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다 타파합니다. 16세부터 20세가 되기까지 4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시고 만족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인 신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의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이 곡식과 과일을 익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농사를 잘 되게 하여 풍요로움이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잘 낳고 잘 살고 싶다면 자녀 중 하나를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자식을 바침으로서 다른 모든 자식이 무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부흥이 일어나고 풍요로운 결과가 생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신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우상숭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20세 때에 우상을 타파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신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타파한 것입니다. 즉 풍요와 다산, 자식의 형통, 무병장수 등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만족과 기쁨을 결정한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들을 타파하여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을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의 형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승진이 들어오는 것이 곧 소원의 내용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신을 기능적이고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의하자면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그 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소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신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향은 자꾸만 돈이나 건강을 담게 되고 왕은 영토의 확장이

나 군사력증강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도 다 타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지 않기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곧 그동안 내게서 버려지고 있었던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들이 내게서 버려지고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내 마음에서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며 술에 절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선민은 율법책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라는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이 드러날 수 있듯이 마음속의 신이 바뀔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마음속의 신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발전이 신이 되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소득균형분배를 통한 복지가 신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무흠한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 들어와서 신이 되어버리자 히틀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우월성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켜 다른 민족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잊혔던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의 신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누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타파를 했듯이 다른 신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유혹과 싸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습성 때문에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끌어들이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데 다 죄악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까지도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신다면 최순실이가 테레사 수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다면 테레사 수녀도 최순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김정은도 세종대왕처럼 될 수도 있고, 세종대왕도 김정은처럼 될 수도 있습니

다.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담고 그것을 소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늙으면 늙을수록 괴팍한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음을 느낍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던 말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와 닿지도 않았던 그 말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논리대로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죄인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고삐를 조금만 늦추면 얼마나 괴팍한 몬스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제자 때에 베드로와 사도 때에 베드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신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요시야가 16살 때에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유지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율법책과 비교해도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아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사느라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에 괴물 같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직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마다 번제단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모심으로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말과 행동으로 가득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